

교회소식

- ※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 ※ 2014년 교회표어 : 성령의 은혜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롬12:15)
- ☞ 매일 정오 12시는 온 성도들이 성전 건물 이전을 위해 5분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 ☞ 이달의 캠페인 - 더불어 사는 성도, 함께하는 공동체
- ◎ **선교학교:** 바누아투 단기 선교를 위한 선교학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교육주제는 '이단의 실태'입니다. 오후 7시(금) 장소: Chapel 실(기도: 경덕현 집사)
- ◎ **연합 축제:** 가을 운동회와 함께하는 선교 바자회가 6월 2일(월, Queen's Birthday)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홀과 마당에서 있습니다. 물품 기증은 오늘까지 받습니다(의류, 슬리퍼, 운동화등이 특별히 필요합니다). 연합 축제 일정은 별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모임:** 연합 축제 점검을 위한 행사진행부, 관련 성도들 모임이 예배 후 유아실에서 있습니다.
- ◎ **월례회:** 예배 후 6월 정기월례회가 각 선교회별로 있습니다.
- ◎ **수요예배:** 이번 주 수요예배(6월 4일)는 베트남 공동체 주관으로 드립니다.
- ◎ **교육:** 시티 카운슬에서 주관하는 음식물 쓰레기로 퇴비 만드는 교육이 다음 주일 (6월 8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주방 옆 교실).
- ◎ **협조:** 8월 말 찬양제 참여를 위해 찬양대 객원 대원을 모집합니다.
- ◎ **새벽기도회:** 매주 금요일 새벽 5시 50분에 교회 1층 Chapel 실에서 있습니다.
- ◎ **귀국:** 이태한 목사-해외한인 장로회 총회(KPCA)와 선교사 대회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참석하고 귀국했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 ◎ **알림:** 6월 5일에 오uckland에서 예정된 '바이블 컨퍼런스'는 이단으로 규정된 구원과 단체가 주관하는 집회입니다. 절대 참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 ◎ **섬김:** 큐티 월간지 생명의 삶 정기구독 담당으로 섬길 성도가 있으면 자원하시기 바랍니다.

교우소식

- ◎ **등록:** 김순정 성도 176 Broadway Newmarket 전화: 021-055-7887
- ◎ **조모상(祖母喪):** 김동수, 민선희 집사-성령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해외 선교 바누아투: 삼마교회 및 청소년, 포토 빌라 간호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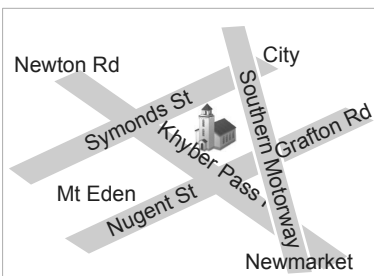
국내 봉사 밀알장애우 봉사 Auckland City Mission

온라인 선교 설교 방송: www.youtube.com /calvaryorgnz Facebook: www.facebook.com /calvarykoreanchurch

예배시간 안내

예 배	시 간	장 소
주일1부예배	주일 PM 1:00	본당
청년모임	주일 PM 3:00	Chapel
수요예배	수요일 PM 7:30	본당
새벽기도	금요일 AM 5:50	Chapel
아동부	주일 PM 1:00	Chapel
중고등부	주일 PM 1:00	별관

오시는 길



섬기는 사람들

담임목사 (Senior Pastor)
이태한 (Tae Han Lee)

부목사 (Assistant Pastor)
심창진(Chang Jin Sim)
이성철(Sung Chul Lee)

성령의 은혜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

Rejoice with those who rejoice; mourn with those who mourn

2014년 6월 1일 주일

16권 21호

교회창립 1999년 7월 14일

타인은 미처 만나지 못한 가족

총회와 선교사 대회를 오가느라 분주 했지만 짬을 내어 처가에 잠시 들렀습니다. 처가 식구들을 불경했지만 아흔이 넘은 어머니(장모님)를 뵈기 위함이 우선이었습니다. 처가집이 아파트 19층인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도중에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여학생이 났습니다. 이 학생이 저희 부부를 보면서 "안녕하세요"라고 아주 공손히 인사 하는거였습니다. 저희는 너무도 신기하고 뜻밖이어서 응겁결에 "으응-안녕" 엉거주춤 답례를 하였습니다. 왜냐면 처음 보는 학생이었고,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도 요즘에도 저런 착한 학생이 있나 싶었기 때문입니다. 처형에게 물어보니 같은 라인에 사는 사람들 끼리는 서로 몰라도, 처음 보아도 인사를 하며 살자고 반상회 때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학생의 부모가 딸에게 말했겠지만 저는 부모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한 그 학생이 참 기특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타인이란, 아직 미처 만나지 못한 가족일 뿐이다"라고 미치 앨범이 '에디의 천국'에서 말한 것이 떠올랐습니다. 세월호의 참사로 한국사회에 새로이 생겨난 트렌드는 "의리" 있게 살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연예인은 대출을 받아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위한 성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의리를 실천한다는 뜻에서 말입니다. 한국사회는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포함) 그동안 '이기적'으로 살아왔고 그것이 개인의 인격과 사생활 보호라는 명분으로 고착되어버린 것인데 세월호 참사로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소망해봅니다.

미치 앨범의 말대로라면 오늘 만난 버스기사가 우리 삼촌일 수도 있고, 지나가다 마주친 학생이 내 조카일 수도 있습니다. 뽀넛 커피를 뽑아주는 바리스타가 우리의 고모일 수도 있고, 거리를 지나는 행인이 내 누님일 수도 있고 공원을 느린 걸음으로 걷는 노 부부가 우리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 이해하지 못할 일도 없고 용서하지 못할 일도 없습니다.

타인은 남이 아니라 미처 만나지 못한 가족이니까요. 가족에게 의리없이 대한다면 더 이상 가족이 아닐 것입니다. 같보리 공동체도 지금보다 더 풍성하고 가득한 의리 있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는 타인이 아니라 가족이니까요. - 이태한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갈보리교회 Calvary Korean Church**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www.calvary.org.nz 담임목사: 이태한
Ph: 09-369-5077 Ph: 09-475-6312 mb: 021-968-388 email: LTH-07@calvary.org.nz

주일 예배

오후 1시 인도:이태한목사

전 주
예배로 부름
개 회 송
참회의 기도
※ 찬 송
※ 성 시 교 독
※ 신 앙 고 백
찬 송
대 표 기 도
성 경 봉 독
찬양대 찬양
설 교
찬 송
헌 금 기 도
교 회 소 식
※ 응 답 송
※ 축 도

반주자
역대상 16:23, 25-26
찬양대
다함께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45. 시편 103편
사도신경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최광암 집사
사도행전 23:12-26
나무십자가 찬양대
고통에는 뜻이 있다/이태한목사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인도자
인도자
나 주님의 기쁨되기 원하네
이태한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찬 양
기 도
성 경
특 송
설 교
합 심 기 도
광 고
찬 송
주 기 도

수요 찬양단
김은희 집사
요나서 3:3-6/봉독: 김광영집사
베트남 공동체
요나의 선포와 회개/이태한목사
인도자
인도자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다같이

청년 모임 오후 3시 인도:심창진목사

Q.T. 나눔과
조별 성경공부
기도 / 최정인 형제

6월 교회악기

연합축제: 6월 2일(월요일)
공동체주간 수요예배: 6월 4일(수요일)
성찬주일: 6월 22일(주일)
항존직분자 기도회: 6월 29일(주일)
단기선교: 6월 30일(월) - 7월 7일(월)

6월 예배봉사가

예 배 안 내: 민광호/석경숙
새신자안내: 김수원/최희숙/
박혜숙/경덕현
주 차 안 내: 김광영/민광호
주 방 봉 사: 한상순/김윤숙/장태욱/
양윤주/박제란

기도순서

이번 주 애찬: 최현철 집사
다음 주일: 현석호 장로
다음 주일 청년부: 김승훈 간사
6월 11일 수요: 정옥자 권사
6월 11일 애찬: 최희숙 집사
6월 15일 주일: 정덕수 장로
6월 15일 청년부: 김정훈 형제

금주의 기도제목

- 1.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 2.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기도와 말씀을 앞세워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도록.
- 3. 분열과 불신을 떠나 연합과 신뢰로 세월호의 아픔을 이겨내는 한국사회가 되도록.
- 4. 은혜 충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교학교가 되도록.

6월 새벽기도회 본문

6일: 사무엘하 18:16~23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는 삶
13일: 사무엘하 20:14~26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거하라
20일: 사무엘하 23:13~39 충성된 동역자들과 함께 세워 가는 하나님 나라
27일: 말라기 2:17~3:6 공의로 심판하시고 사랑으로 회복하십니다

선교와 중보기도

갈보리 각 공동체는 공동체별로 맺어진 선교사들과 긴밀한 교제를 통해 사역소식과 기도 제목들을 나누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동체는 선교사님들과 사역들을 위해 적극적인 중보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주는 선교대회 참여후기입니다.

지난 주 월, 화(5월 26, 27) 선교사 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세계 각 지역에서 모여온 선교사부부 100여명과 목사들, 성도들이 함께하는 귀한 자리였습니다. 우간다, 터키, 불가리아, 남 아프리카 공화국 등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지역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인 25년 만에 몇몇 동문들을 만나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윤기나던 젊음은 간곳없고 어느덧 이마가 흰히 보이는 반 대머리에 아랫배는 서둘러 나와 있는 중 늙은이가 된 동창생들의 모습에서 사반세기의 흐름이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었음을 말하는 듯 했습니다. 모두들 학창시절로 돌아가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한편 궁금했던 동기들의 족적을 더듬으며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선교사로 파송된지 20년 이상 되는 선교사들에게 공로상을 수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선교사는 25년, 또 어떤 선교사는 한곳에서 28년, 이제는 할아버지, 할머니 선교사가 되어 은퇴를 앞둔 분들이 여러분 계셨습니다. 공로상을 수상하면서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소감은 "이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나는 기회를 주신다고 해도 여전히 선교사의 길을 갈 것이며 지금 사역하는 그 곳에서 뼈를 문젯다는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감을 자리에 앉아서 듣고 있던 후배 선교사들이 끄덕이는 고개는 모두들 이심전심이라는 웅변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들은 남들이 마다하는 우간다를 가게 하였을까? 무슨 평안이 저들로 하여금 발각이 되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를 터키땅을 밟게 만들었을까? 누가 불가리아를 섬기도록 보냈을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께서 가게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섬기게 하셨으리라, 우리 갈보리 교회가 가야할 길을 저들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